

개 회 사



회 장 조 규 상

제 27 차 대한산업보건협회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전국 대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개회사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총회는 묵은 해를 결산하며 새해를 계획하는 중요한 모임입니다.

돌이켜보건데 지난해는 민주화 물결속에서 제 6 공화국이 출범하였고 어려운 정치상황속에서도 서울올림픽을 훌륭하게 치뤄 한국민의 역량을 세계만방에 과시하였으며 노사간의 힘든 분쟁속에서도 수출입 총액이 1,000 억불을 돌파하는 사상에 유래없는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이러한 속에서도 사회와 국민의 소망은 한결 같이 근로자의 복지에 집중되어 그 어느때보다도 산업보건과 안전이 강조되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의 건강이 국민복지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는 데서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과거에 잠재되었던 직업병이 연달아 보고되었고 이를 위한 직업병 심사위원회, 학술위원회가 활발히 활동하여 그 대책을 마련하는 등 그 어느때보다도 보람찬 한해였습니다.

우리는 산업보건사업에 있어서 이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오랜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80 년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었으나 행정이를 뒤따르지 못하였고, 사업장에 있어서는 이를 수행할 조직과 시설과 인력이 부족할 뿐더러 사용자에 대한 관심도 없어 산업보건은 사업장내에서 그 터전을 마련하지 못하여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산업보건은 이 분야의 관심을 가진 전문가들이 본 협회를 중심으로 정부의 이렇다할 지원도 없이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개별적 노력에 의하여 이끌어왔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누구를 탓할 때가 아닙니

다. 오늘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은 한낱 구호나 장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본 궤도에 올려놓는가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는 처음으로 산업안전국이 설치되었고 전국 지방청에는 산업안전과가 신설되어 획기적인 안전보건의 지도감독행정이 전개되어 나갈 것으로 크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산업보건은 사업장내에서 사용자부터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보건관리자와 담당자의 역할은 지대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자질의 향상과 아울러 권한의 부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본 협회는 각 지역이 힘을 합하여 기술의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주력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표하에 본 협회는 중앙실험실의 설

치, 보건관리업무의 전산화, 표준검사방법의 보급, 학회학술활동의 지원과 국제학술교류 등 획기적인 사업을 전개해 나갈 생각입니다.

산업보건사업은 민간주도로 그리고 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서는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건강은 나라의 원천이며 생산의 원동력이며 국민복지의 근원입니다. 올해에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한 산업보건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여야 할 해라고 생각합니다.

대의원 여러분들의 노력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하면서 개회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1989. 2.28

